



오는 2013년 순천을 거대한 도심 정원으로 바꾸게 될 정원박람회장 조감도. 박람회장에 들어설 해외 각국의 유명 정원.

정원박람회 개최 개요

개최시기	2013. 4. 20(토)~10. 20(일) (6개월)
박람회장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등 순천만 일원
규모	55만8천㎡
예상관객	600만명(내국인 570만명, 외국인 30만명)
총사업비	1,055억원
주제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
주요내용	세계정원·테마정원·습지정원, 수목원 등 다양한 생태정원

순천을 지구촌 정원으로 내·외국인 600만명 부른다



♣ 미리 가 본 순천정원박람회

2013년 4월 20일, 김미연(여·38)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순천 정원박람회장에 도착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현수막과 축하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려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박람회를 찾는 인파가 넘쳐나면서 평일인데도,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었다.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팸플릿을 나눠주느라 정신없이 바쁜 관람안내원은 "이제 시작"이라며 "6개월동안 600만명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선 55만8천㎡의 정원박람회장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탁 트였다. 프랑스식 정원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정원을 비롯, 풍차가 도는 네덜란드식 정원과 도시풍의 미국식 정원 등이 어떻게 적어도 그림엽서 풍경이 되는 정원이 끝없이 펼쳐졌다.

국가별 정원 옆에는 국내의 작가 20여명이 비스듬한 언덕과 구불구불한 길을 화폭으로, 꽃을 물감삼아 그림듯한 정원이 눈을 사로잡았다. 정겨운 새소리를 들으며 이쁘조차 생소한 각종 야생화, 해바라기와 바람개비, 수천여종의 튜립과 장미 등으로 꾸민 꽃의 정원을 지나 '숲'이라는 이름이 어울릴만한 도시공원과 온갖 허브 향, 약초로 가득한 한방약초원을 둘러보는데만 한나절이 훨씬 걸렸다.

박람회장을 나왔는데, 또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주박람회장을 벗어나니 10만5천㎡의 국제습지센터와 저류지공원, 수천여종의 나무로 빽빽한 수목원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수목원에 설치된 50m 높이의 전망탑에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서야 '소형 경전철(PRT·Personal Rapid Transit)'을 탔다. 포스코가 6천500억원을 투입,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경전철이다. 귀에 거슬리는 소음도 없이 시속 40km의 속도로 순천만까지 가는데 10분 가량 걸렸다.

경전철에서 내리자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의 광활한 갈대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갈대 사이로 휘돌아가는 S자형 물길, 그 사이로 칠게·농게가 기어다니다고 위로는 흑두루미와 저어새의 군무(群舞)가 장관이다.

꼭 3년 뒤인 오는 2013년 순천의 풍경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원박람회 프로젝트

순천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3년 뒤 도시 전체를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드넓은 순천만과 도심,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선에 생태와 문화의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순천을 지구의 정원으로 바꾸놓겠다'는 게 순천시의 야심찬 비전이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이다.

순천시는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불리는 순천만을 보존하는 한편, 정원박람회를 통해 '숲'으로 불릴만한 또 하나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해 순천을 거대한 도심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의 대표적 생태도시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다, 새로운 도시개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내외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람회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3천억원에 달하고 6천79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1만79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순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어떻게 바뀌나=순천시는 풍덕동·오천동 등 순천만 상류 일대 들녘 55만8천㎡를 주박람회장으로 꾸민다. 또 인근에 ▲국제습지센터(10만5천㎡) ▲수목원(25만3천㎡) ▲저류지(24만5천㎡) 등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순천만 일대 152만7천㎡가 거대한 정원으로 바뀌게 된다.

주박람회장의 경우 정원박람회 개최 예정도시를 비롯, 유럽·아시아, 아메리카 등 각국의 차별화된 세계정원 10개소 가량을 4천~8천㎡씩 만들고 국내외의 작가 20여명이 참여해 만드는 작가정원, 꽃·바람·태양·야생화·물·갤럭시·온난화 등을 테마로 조성되는 주제정원이 배치된다. 또 연장 1.5km, 폭 20m 부지에 방울림과 생태숲 등이 들어선 도시숲(3만㎡)을 조성한다.

주박람회장과 습지센터 사이를 다리(길이 200m·폭 15m)로 연결하고 여기에서 순천만까지는 친환경적인 소경경전철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관광객 600만, 입장료로만 630억원 수익=순천시가 정원박람회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천555억. 이 가운데 국비·도비 등 480억을 제외한 575억원을 순천시가 투입한다.

순천시는 그러나 6개월동안 열리는 데다, 녹색성장 시대의 환경 친화적인 행사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홍보효과가 높아 외국인 30만명 등 6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입장료로만 630억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향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데다,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는 훨씬 크다는 게 순천시측 입장이다.

◇정부 행사 승인 1년, 어떻게 준비되나=순천시는 1년전인 지난해 4월 17일 정부 승인을 받은 이후 정원박람회의 세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부지 매입을 서두르는 등 박람회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10월부터 박람회장에 사용될 나무 식재에 들어가는 등 조성 공사에 착수, 2013년까지 박람회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 박람회에 사용될 3만3천그루의 나무 가운데 2만 1천253그루의 나무를 이미 확보했고 지난 3월부터 박람회장에 사용될 나무 식재를 위한 가식장(1천200㎡) 조성에 들어갔다. 이와 행사에 사용될 100종이 넘는 꽃들의 종류별 개화 시기 등을 파악하면서 지역 화훼농가와 연계, 박람회장에 필요한 800만본의 꽃 수급에도 나섰다.

순천시는 또 SOC 등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박람회 조직위원회, 박람회 지원단을 가동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원박람회란=정원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원을 한자리에 모아 미래 정원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산업장식미술박람회 가 효시다. 1948년 스위스의 화훼생산업자들이 중심이 돼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를 결성, 정원박람회에 대한 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제적 박람회로 정착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순천 700년의 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International Garden Exposition Suncheon Bay Korea 2013

기간 : 2013. 4. 20 ~ 10. 20 (6개월)

광주일보 창사 58주년을 축하합니다

순천시
순천시의회
국회의원서감원
순천대학교
순천경찰서장황원호
순천교도소장이용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순천교육청교육장김광호

한국수자원공사
주요담당관리단장
한국전력순천지점장
순천의료원장최갑주
순천농협조합장이황하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Koera's Ecological Capital, Suncheon